왕따와 '일진',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현실을 고발한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방송되면서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KBS 2TV 드라마 '학교 2013'의 한 장면, SBS 다큐 '학교의 눈물'의 내레이션에 참여한 연기자 류덕환과 손현주. 사진제공 | KBS·SBS

왕따·일진…TV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2013' 어두운 단면 담아내 호평
'학교의 눈물'은 폭력 피해 심각성 조명
'이제 네가…'선 자살학생 이야기 담아
류덕환·손현주 등 배우들도 적극 참여

TV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학교와 학생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KBS 2TV 월화드라마 '학교 2013'이 학교 폭력과 왕따, 기간제 교사 등 대한민국 교육의 어두운 단면을 현실적으로 그리며 호평받는 가운데 학교를 주 무대로 한 다큐멘터리들이 잇따라 방송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13일 첫 방송된 SBS 스페셜 3부작 '학교의 눈물'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 가해자의 얘기를 다루며 그 심각성을 조명했다. 1부 '일진과 빵셔틀' 편에 이어 2부 '소나기 학교'는 일요일 심야 시간 편성에도 각각 7.7%, 8.1%(이하 AGB닐슨 집계 기준)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23일 방송되는 KBS 2TV 연중기획 다큐멘터리 '이제 네가 말할 차례'도 학교 폭력의 실태를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 네가 말할 차례'는 2011년 12월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고(故) 권 모 군 사건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제작진사인 KBS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방송 후 개학 시기에 맞춰 전국의 중고교에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용으로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길을 끈다.

배우 류덕환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학교의 눈물'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류덕환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현재는 충북 제천에서 '왕따 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 과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음을 밝힌 박보영은 '이제 네가 말할 차례'에 직접 출연해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박보영은 학생들이 진행하는 역할극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체하는 학생들이 용기를 낼 것을 호소한다. 배우 손현주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KBS미디어 관계자는 "최근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방증이다"며 "방송 후 단 한 두 명에게라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학교와 사회가 작은 희망이라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ON AIR

채널A 밤11시 **분노왕**

롤러코스터 인생을 산 연기자 임영규. 그의 기막힌 인생 역경 스토리가 공개된다. 사진제공 | 채널A

임영규, 유산 165억 탕진한 사연

'이보다 더 심할 순 없다!'

배우 임영규의 롤러코스터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165억 황태자'에서 찜질방 밑바닥 생활까지 경험한 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다"며 과거 자신의 모습에 몸서리친다.

23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채널A '분노왕'에 임영규가 출연해 방탕하고 뻔뻔했던, 안하무인의 인생을 살았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그는 "20년 전 부모로부터 유산 165억 원, 지금 돈으로 6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물려받았다"고 말한다. 당시 부친은 국내 1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큰 회사를 운영했으며 임영규는 250평 부지의 저택에서 가정교사, 운전기사, 도우미 등과 함께 살 정도로 부유한 생활을 누렸다.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간 임영규는 사치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2년 6개월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가족들은 외면했고, 결국 혼자서 찜질방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목욕탕 안에서 몰래 빨래하다 직원에게 발각돼 야단을 듣는 수모까지 당했다며 "눈물 젖은 빨래를 해봤느냐"고 울부짖는다. 또 최근 지하철에서 만난 한 시민이 자신을 알아보고 3만원을 건넨 에피소드도 공개한다.

이날 임영규는 4세 때 헤어진 딸 이유비를 20년 만에 TV로 접하고 눈물을 쏟은 사연을 공개해 절절한 부성애로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현재 그는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로 생계를 이어가며 연기자로 재기할 날을 준비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아빠, 광고 찍으러 가?"

"아빠! 어디가?" 인기에 CF들 줄이어
아웃도어·의약품·식품 등 전방위 러브콜

'아빠! 광고 찍으러 가?'

순진무구함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다섯 어린이가 광고계까지 장악할 기세다.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아빠! 어디가?)'에 등장하는 김성주의 아들 민국, 성동일의 아들 준, 윤민수의 아들 후, 이종혁의 아들 준수, 송종국의 딸 지아가 광고계의 손짓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최근 개별 혹은 아빠와 함께이거나 그룹별로 짝을 이뤄 광고를 찍자는 제안을 받고 있다. '야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특성상 아웃도어 브랜드가 일찌감치 손을 내밀었다. KBS 2TV '1박2일', SBS '런닝맨' 등 여럿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처럼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광고 관계자는 "현재 협찬 없이 각자 자신의 옷을 입고 출연하고 있다. 단체복은 결속력을 높게 보이는 효과도 있어 업계가 활발히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아동복, 의약품, 식품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연예인 부모를 둔 어린이들도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어린이 모델을 전문으로 하는 한 관계자는 "싫증나게 느껴지는 아역보다는 편안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어린이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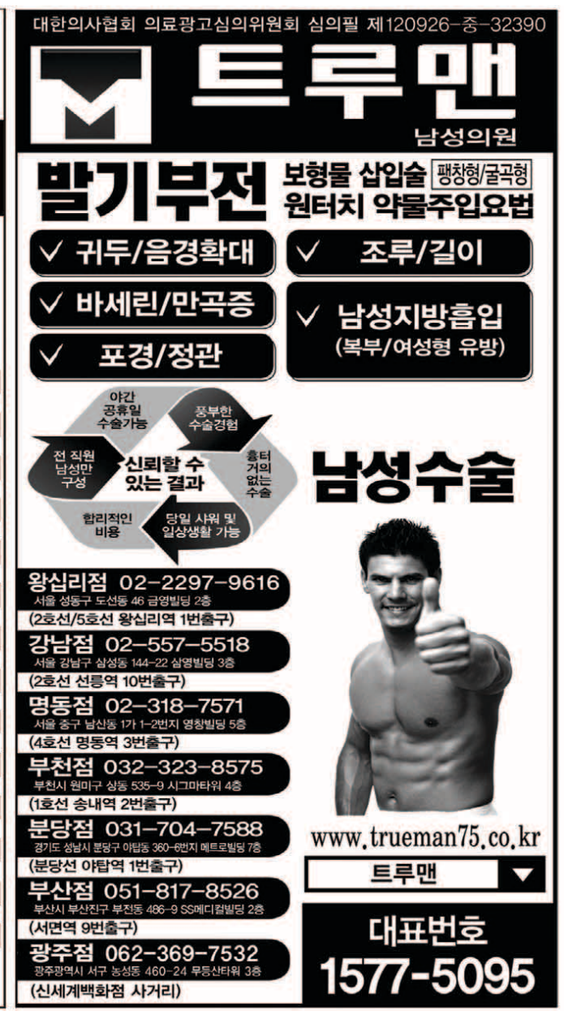
한편 '일밤-아빠! 어디가?' 제작진은 프로그램 인기에 첫 방송 전 내걸었던 8%의 시청률을 달성하자 "10%를 넘기면 해외로 떠나겠다"며 포부도 드러냈다.

아빠와 아이의 솔직담백한 여행담으로 시청자는 물론 광고계의 호기심을 끌고 있는 MBC '일밤-아빠 어디가'의 한 장면. 사진제공 | MBC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음악 랭킹

1위 음악 정보보기

1월 14일~1월 20일, 자료: 멜론

순위	곡명	아티스트	앨범명
1	눈물샤워 (feat. 에일리)	배치기	4집 Part.2
2	강북멋쟁이	정형돈	박명수의 어떤가요
3	I Got A Boy	소녀시대	I Got A Boy
4	I'm Sorry	씨엔블루	Re:BLUE
5	싫다	백지영	싫다
6	시작이 좋아 (feat. 강민희)	버벌진트	시작이 좋아
7	되돌리다	이승기	숲
8	카페인 (feat. 용준형)	양요섭	The First Collage
9	Goodbye To Romance	써니힐	Antique Romance
10	Special Girl	인피니트H	FLY HIGH